

삼화페인트, 건축경기 호조 “덕봤다”

2002년 1-6월 매출 914억원으로 20% 증가 ... 산업용 도료도 호조

삼화페인트(대표 김장연)가 2001년부터 영업력을 강화하면서 페인트 시장판도가 바뀌고 있다.

2001년 제비표 페인트로 알려진 건설화학을 제치고 금강고려화학과 DPI에 이어 처음으로 페인트 3위에 올라선 삼화페인트는 2002년 상반기에도 매출액과 경상이익이 각각 914억원과 83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1년 상반기 761억원의 매출액과 31억원의 경상이익을 올린 것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20.1%, 경상이익은 무려 167.7%나 상승한 영업실적을 올린 것이다.

페인트 경기 자체가 좋고 특히 건축경기가 좋아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축용 도료 매출이 늘어났으며 최근 주력하고 있는 산업용 도료 매출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또 비수기와 성수기로 나뉘어 있던 생산공정을 일년 내내 일정하게 만들고 효율을 높임으로써 이익률을 극대화한 것이 경상이익 상승에 큰 몫을 했다.

이에 따라 삼화페인트는 2001년 건설화학을 56년 역사상 처음으로 제치고 3위로 올라섰으며 불가능해 보이던 2위 자리도 노리고 있다.

노루표 페인트의 DPI(대표 한영재)는 2002년 상반기 매출액이 2001년 상반기의 1048억원보다 소폭 증가한 1050억원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삼화페인트와 매출액 차이는 136억원에 불과해 삼화페인트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2-3위간 순위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삼화페인트는 최근의 상승세를 반영해 2002년 총매출액을 2002년 초 예상했던 1772억원에서 1880억원으로 수정하며 2001년 1624억원에 비해 15.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2002년 총매출액을 2100억원을 잡고 있는 DPI와의 목표 매출액 차이(220억원)가 매출액의 10% 정도 밖에 나지 않고 있다.

DPI는 매출 확대보다는 이익률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기 때문으로 2002년 상반기 매출액은 105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경상이익은 115억원으로 2001년 상반기 94억원보다 22.3%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DPI는 저부가가치제품 생산을 억제하고 제조공정을 합리화함으로써 이익률을 제고하고 또 계열사 지분법으로 인해 수입이자도 지급이자보다 늘어나 영업외수익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경상이익은 2001년 159억원에서 25.7% 늘어난 200억원을 웃돌 것으로 확산하고 있다.

페인트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금강고려화학(대표 고주석)은 국내외 페인트공장 매출액을 포함한 2002년 상반기 페인트 매출이 3476억원에 달해 2001년 상반기 3335억원에 비해 4.2%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강고려화학은 2001년 중국공장과 2002년 말레이시아 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 매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부문별로는 건축과 자동차 부문 매출이 전체 매출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 09/ 04>